무더위 속 한줄기 청량함…문경서 열린 선명상 한마당

참선지도자협회, 청 · 장년 명상힐링캠프 성료

7월 13~20일 문경명상마을서
불교 선칠(禪七) 수행 차용
7박 8일 특별한 명상 여정
청 · 장년 70여 명 참가하여
선원장 각산 스님 지도받아

문경=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세속의 찌든 습을 내려놓고 일주일간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명상 한마당이 문경 세계명상마을에서 열렸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 스님)는 경북 문경 봉암사 인근에 위치한 문경세계명상마을에서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청·장년 명상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그동안 청·장년을 구분해, 2박 3일 등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어 온 캠프를 통합하여 7박 8일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청·장년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서로간에 소통을 하며 함께 도반으로서 수행해 나갈 수 있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캠프 동안에는 선명상 집중 수행인 '선칠(禪七)수행'으로 정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선칠수행'은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7일간 모든 것을 멈추고 수행에만 집중하는 수행 과정이다.

문경세계명상마을 선원장이기도 한 각산 스님이 법문과 문답, 인터뷰로 이들의 수행을 이끌었으며, 행선을 비롯해 종의 울림에서 고요함을 찾는 종송명상과 염력명상 등도 진행됐다.

7월 20일 회향식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8일간의 명상수행이 인생의 큰 경험이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장년명상캠프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선원장 각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구시에서 온 서병우 씨(44)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료받았다. 다시 일상에 복귀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수행하시는 모든 스님과 봉사자 분들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도 저절로 따뜻해졌다. 여기서의 수행을 바탕으로 일상에 복귀해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에서 온 변유진 씨(24)도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천지개벽을 겪고 간다. 많은 청년들이 명상캠프에 참여하여 내 안에 본성을 발견하고 행복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선원장 각산 스님이 진행하는 명상문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여수시에서 온 오아련 씨(42)는 "스님의 법문에 따라 수행하고 특히 점검을 받으니 의문점이 해결되고, 도반들이 함께 수행문답을 진행하며 잘 모르는 부분도 공감하니 더 배울 수 있었다"며 "스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나와 끊임없이 스스로 대화하는 길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각산 스님은 이번 캠프 참가자들을 향해 일상생활에서도 7박 8일간 배운 수행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수행이 몸에 베이면 딱 앉는 순간 번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고요하게 돌아간다. 이것이 번뇌가 있어도 번뇌가 없는 상태"라며 "우리나라 한국불교에 여러 전통수행이 있지만 현대화된 수행을 통해 삼도를 갖추고 나면 꿈을 꾼 것이 펼쳐지고, 마음이 가는대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남극점에 최초로 도달한 아문센 일화를 설명하며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환경에 맞춰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미세한 변화에 적응해가며 생활로 돌아가서도 꾸준하게 수행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선방으로 현대화된 선명상을 보급하고 있는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을 뒤로 하고, 다시 생활속으로 들어가는 캠프 참가자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한편, 문경세계명상마을은 8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간 '간화선과 초기불교 통합수행'을 주제로 선칠수행 과정을 진행하며, 9월 6일부터 8일까지는 60기 명상입문반을 연다.

사찰음식 '장인' 도입…동희 스님 등 19명 위촉

문화사업단, '제1회 장인' 위촉식
1급 6명 · 2급 13명으로 최종 선정
명장 · 전문조리사 격차 해소 기대



'제1회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찰음식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장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 시행 중인 '사찰음식 명장 자격제도'와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제도' 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찰음식 세계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7월 23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제1회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장인 1급 6명과 2급 13명 등 총 19명의 스님에게 사찰음식 장인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찰음식 전문성을 인정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찰음식을 보급·계승하는 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사찰음식 장인은 2단계를 과정을 통해 1급과 2급이 구분된다. 우선 문화사업단에서 각 급수 대상자를 경력·추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장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위촉된다.

사찰음식 장인 1급 대상자는 사찰음식 정규강좌(초·중·고급) 강의를 180회 이상 진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급 대상자는 문화사업단 지정 교육 강의를 30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경력 산정 기준과 별개로 문화사업단장 또는 사찰음식 명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사찰음식 장인 선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사찰음식 장인 1급으로는 △동희 스님 △법송 스님 △동원 스님 △여거 스님 △도림 스님 △법해 스님이 위촉됐다. 장인 2급으로는 △주호 스님 △성견 스님 △성화 스님 △경운 스님 △형민 스님 △동화 스님 △지견 스님 △유화 스님 △정효 스님 △중제 스님 △보전 스님 △혜성 스님 △혜범 스님이 선정됐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한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앞으로는 사찰음식 '장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찰음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상월결사, 군포교 기금 1억1000만원 지원

7월 19일 봉선사 청풍루서
사관학교 5곳 교육부대 6곳
"군포교, 한국불교 중흥 · 중심"



상월결사가 군종특별교구에 군포교 운영지원금 1억1000만원을 쾌척해 군인 불자 전법에 박차를 가했다.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가 7월 19일 남양주 봉선사 청풍루에서 '2024년 상월결사 군포교 운영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상월결사는 사관학교 5곳(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군국간호사관학교), 교육부대 6곳(육군훈련소, 육군학생군사학교, 육군부사관학교, 해병대 교육훈련단, 공군 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등 총 군종특별교구 11개 기관에 각 1000만원, 총 1억1000만원을 전달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는 대학생 전법을 위해 시작됐지만 대학생이 군인이 되고, 군인이 제대 후 대학생이 된다. 군인 불자 포교가 대학생 전법만큼 중요한 이유"라며 "군포교가 바로 한국불교 중흥이자 중심이 될 것이니 마음을 함께 모아달라"고 밝혔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상월결사가 원력을 모아준 덕분에 '감로수'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전법에 매진해 1년에 10만명 이상의 수계 군장병을 배출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원금을 받게 된 해병대 교육훈련단 금하 스님은 "소중한 지원금 덕에 군포교를 더 활발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수계식, 찾아가는 법회 등 다양한 전법 프로그램으로 장병들이 친근하게 불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양주 봉선사=김민재 수습기자

선업 스님 "정보 과잉 시대, 모름서 해답을"

국제포교사회 '열린대법회'서
'화두선과 국제전법' 주제 법문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넘쳐나는 정보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에서 소외될까 불안하고 '앎에 대한 강박'은 커져만 갑니다. 앎에서 해방되기 위해선 '모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본래면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 스님)가 7월 20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4 명사초청 열린대법회' 법사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사진〉 열린대법회는 국제포교사 제29기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화두선과 국제전법'을 주제로 법문한 선업 스님은 출가 이야기와 명상 상담 경험, 숭산 스님 일화 등을 예로 들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포교사의 역할에 주목했다.



선업 스님은 "해외 포교 지평을 넓힌 숭산 스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하고, 모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서양 사람들의 병통을 명확하게 파악했다. 그래서 '앎에서 해방되는 것'을 화두로 삼았다"며 "모름의 상태로 돌아가고 스스로가 모름을 인정하게 됐을 때 다시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고, 한 단계 나아가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를 둘러싼 이름, 나이, 생김새 등의 언어적 규정이 결코 '본질'이 아니라는 점도 역설했다. 선업 스님은 "'견성(見性)'의 성립 조건은 보는 것에는 보이는 것이 있다는 데 있다. 대상과 그것을 보고 있는 대상이 각각 존재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보고 있는 대상이 보이는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규정에 의해 본질은 왜곡된다"며 "우리는 이 대상이 나타나기 이전, 즉 말보다 앞서가는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업 스님은 "숭산 스님을 이을 걸출한 해외 포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더프라미스 '재난 현장 아동 돌봄' 추진

LG유플러스 · 한국중앙봉사센터
7월 18일 출범…아동 공간 운영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LG유플러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 구호 현장에서 아동 친화 공간 '유플러스 키즈존(U+Kids Zone)'을 운영한다. 이들은 7월 18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1층 시어라운지에서 '재난 현장 아동 돌봄 활동 출범식'을 가졌다.〈사진〉

더프라미스에 따르면 대형산불, 지진, 수해 등 재난 현장에서 아동은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급증하는 요즘 '기후 약자'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해외 재난 현장에서 구호단체가 인명구조, 시설복구 활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놀이터와 학교를 운영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간 국내 재난 현장에는 아동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시설과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더프라미스는 2022년 동해안 산불 대피소에서 아동 놀이방, 2023년 강릉 산불 대피소에서 어르신 사랑방을 운영해왔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프라미스는 LG유플러스·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재난 구호 현장에 아동 친화 공간을 운영해 맞춤형 재난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더프라미스는 아동의 교육·놀이·돌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인력과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키즈 특화 서비스 '아이들나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패드와 냉난방기, 아동 특화 키트 등을 제공한다. 아동 특화 키트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색칠 그림책, 색연필, 장난감, 전신 베개, 학용품 등으로 구성된다. 김내영 기자

"어르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도선사, 7월 22일 '복달임 행사'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선사가 여름날 폭우와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자비나눔에 나섰다.

삼각산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7월 22일 서울 강북구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승재) 1층 경로식당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삼각산 도선사와 함께하는 복달임'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도선사가 후원하고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150명, 지역 초대 어르신 250명 등 총 400명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다. 식사는 육개장, 밑반찬, 개인별 식수, 수박과 떡 그리고 기념품(화장지·커피믹스)로 구성됐다.

식전 행사에는 사회복지법인 혜명 상임이사이자 도선사 총무국장인 원각 스님을 비롯해 이승재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김명희 강북구의회 의장, 유인애 강북구의회 부의장, 박철우 강북구 구의회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원각 스님과 내빈들은 직접 배식 봉사에 동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원각 스님은 "궂은 장마철에도 '도선사와 함께하는 복달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행사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요즘 장마철이라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날이 많다. 오늘 준비된 음식 많이 드시고 올해 여름 잘 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보양식을 대접받은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김문자(80) 할머니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행복했다. 도선사가 해마다 이런 행사를 열어줘서 감사해"라며 "내년에도 행사에 계속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수습기자